

축구에서 배우자



김 재 현 본지 편집위원/건업농장 대표

ㄱ 4년이 지났다.

우리는 4년전 한반도를 넘어 지구촌 곳곳에 “대한민국”을 각인시킨 월드컵 축구를 기억한다. 한반도가 세계중심에 우뚝 선 이 역사적 광경을 지켜보며 단군 이래 대한민국 국민임이 이토록 자랑스러웠던 때가 있었던가 되새겨 보았다. 이는 항상 세계 변방의 자그마한 반도국으로 머물러왔던 조용한 아침을 깨우고 역동적인 힘을 보여준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었다.

우리가 그토록 뜨겁게 외쳤던 6월은 이제 4년을 뒤로하고 우리 앞에 서 있다. 필자는 다시 한 번 도전하는 한국 축구를 보면서 우리 양계가 참으로 축구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그 첫째가 자본과 투자이다.

월드컵 1승이 목표였던 우리 축구가 축구 전용 구장과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했던 것처럼 계획적인 자본과 투자는 양계 산업이 성장하는 지양분이 된다. 그리고 양계로 축적된 부는 재투자되어 생산성 향상과 양계 산업 발전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둘째는 기초 체력과 끊임없는 기술 습득이다.

패스, 드리블, 프리킥 등 기본 기술과 90분간 끊임없이 뛸 수 있는 심장은 태극전사로 하여금 활



화산처럼 타오르는 정신력과 경기력으로 거듭나게 했다. 양계 산업이 다른 축종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축산물로 자리 잡으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선진 사양 기술을 접목하고 질병 차단 방역, 사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 받는 축산물로 거듭나야 한다.

셋째는 과학적인 통계 자료에 근거한 전산화 작업이다.

2002년 월드컵에서는 선수별 개인자료와 상대국 전략 전술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선수들을 적재 적소 배치시켰다. 그 결과 전력 극대화로 축구 강국들을 차례로 침몰시키며 외 필승코리아의 쾌재를 부르지 않았던가? 양계 산업도 무엇보다 정확한 통계 자료를 초석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산란율, 사료 섭취량, 음수량 등 기초 생산 자료와 계란 생산량과 향후 양계 산업 발전 방향의 여측 분석은 우리에게 수익 극대화로 보답할 것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몫이다.

우리는 한 개인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히딩크 감독을 통해 새롭게 배울 수 있었다. 그는 한국 축구의 고질병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갔고 선수들에게는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눈과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한 힘찬 날개짓을 계속할 수 있었다. 양계산업도 마찬가지다. 농장이 성장 발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농장주의 절대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확고한 마인드를 갖고, 무한 경쟁시대에 도태되지 않으려면 양계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키워나가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임을 인식하자.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이한 생각을 깨치고 양계를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자.

축구 발전기금이 축구 꿈나무 육성으로 그 결실을 보고 있듯이 양계자조금으로 보다 안정적인 양계 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 그리고 국내 리그에 만족하지 않고 빅리그에 진출하여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빛내듯 양계산물이 내수에 그치지 않고 해외 수출을 통한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인식하자.

정부와 축협(축구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 4강을 쏘아올렸 듯 정부와 축협(축산업 협동조합)의 축적된 힘으로 선진 양계국가의 꿈을 실현하는 그날이 오길 기대한다.

이제 2002년은 잊어라.

계란과 닭고기를 먹고 힘을 낸 우리의 태극전사들이 다시 한번 신화창조에 나선다. “끝나지 않은 신화”가 지금 막 펼쳐지려 한다. 한국 축구, 한국 양계 파이팅! **양계**